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 비교 및 정서지능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이 영 한

유 미 현

청명중학교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을 비교하고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시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 150명, 일반학생 130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 총점 및 리더십 하위요인별 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생보다는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2개 하위영역에서, 일반학생은 1개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정서지능 총점과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과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 일반학생 모두 1개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 과학영재 학생, 일반학생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초로 영재에 대한 언급은 '영재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먼(Terman, 1925)이 Stanford-Binet 지능검사의 상위 1%에 해당되는 IQ 135 이상 학생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영재라고 정의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Gardner(1983)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라고 창의성 개념과 유사하게

영재성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이 인간관계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지적 능력과 정서지능을 언급하였다. 세계적으로 영재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Renzulli(1978)는 사회적 유용한 준거로 자신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심리적 특성 즉, 평균이상의 지능과 창의성, 과제집착력의 상호작용을 ‘영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의 영재성(giftedness)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과학인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인간의 지능, 창의성, 상위인지, 학습양식 등과 같은 인지능력과 정신 과정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능력이다. 둘째, 동기,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인간의 정의적(affective) 특성이다. 셋째, 대인관계와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social) 특성이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이미 1972년 제시된 미 교육부의 영재의 개념에는 6가지 요소 중 사회적 특성인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국에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는 영재의 정의적, 사회적 특성으로 리더십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박성익 외, 2003). 최근에 이르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학생들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영재 교육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리더십 특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Besty, 1996; Black, 1984; Chauvin & Karnes, 1983; Plowman, 1981). 일반적으로 영재의 인지적 특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정의적·사회적 특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으로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는 실정이다.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정서지능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여상인, 백은주, 2007; Dearborn, 2002; Gabriel & Griffiths, 2002; Goleman, 1995; Milgram & Milgram, 1976). 그러기에 최근의 영재교육에서는 영재의 정서 함양, 도덕성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등 영재의 수월성 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리더십 교육, 정서교육이 영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목적도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우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영재가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재능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들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의 계발과 함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isk와 Rosselli(1987)에 의하면 리더십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교육과 훈련에 의해 계발되어질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집단 환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휘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 능력을 청소년 시기에 계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유능한 리더를 양성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김금희, 2007).

이와 같이 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아동 대상 리더십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나 교육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영욱, 2004; 노영희, 2003).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영재의 리더십 기초 연구사업 2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영재 리더십에 대한 인식 조사와 성인리더의 특성조사를 통해 영재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김미숙, 전미란, 2005). 2차년도인 2006년 연구에서는 리더십 개념을 구조화하여 이를 측정해주는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리더십 검사도구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리더십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영재의 리더십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김미숙 외, 2006).

한편, 리더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내부에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을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정서지능을 기질적 성향으로 보면서 20개의 정서적 역량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서적 역량 요소의 하나로 리더십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전통적 지능지수(IQ)와는 달리 정서적 지능은 성인기에도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정서적 지능은 사회적 지능이나 실천지능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리더십은 정서적 지능에서 내포하고 있는 자의의식, 관리, 동기, 사회성, 자기통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 지능이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평생에 걸쳐 정서적 지능 계발을 리더십 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면 효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김경아, 2004; 김정일, 2003).

지난 몇 년 동안, 지능 연구자는 전통적인 지능 검사로 측정된 정신 능력보다 폭 넓은 개념과 지능의 다양한 측면 또는 영역(Gardner, 1983, 1993, 1999; Guilford, 1967; Sternberg, 1985)을 지능으로 인식해왔다. 리더십 연구에 보다 넓은 의미의 지능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의 일이다. 아마도 Goleman의 정서지능(1995) 책 성공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Q에 대조적인 용어로 정서지능(EI) 또는 EQ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Cooper & Sawaff, 1997; Ryback, 1997; Goleman, 1998; Weisinger, 1998; Feldman, 1999) 정서지능과 리더십 사이의 관계, 즉 효과적인 리더십이 정서지능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서지능이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Chan, 2007).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더십과 정서지능을 관련시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영이나 군대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서지능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다. 교육 분야에서 정서지능과 리더십을 관련시킨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정서지능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선옥, 2012; 김지선, 유미현, 윤여홍, 2012).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비교한 김경아(2004)의 연구에서는 영재학생이 일반아에 비해 목표달성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능력, 목적의식 등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점수보다 인간관계능력이 낮았는데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마음가짐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 면에서는 영재아와 일반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임선영(2007)에 의하면 정서지능 전체, 리더십 특성 전체 그리고 정서지능과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이 학습능력과 자기이해 기술 간에는 정적 상관관이 있었지만 정서조절과 리더십생활기술 전체와는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학업성취도 및 정서지능을 연구한 황미영(2009)에 의하면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4학년 아동들의 리더십이 5, 6학년 아동의 리더십보다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리더십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은 학업성취도 전체 및 하위요인 대부분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 요인을 제외한 정서지능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리더십 특성을 개인이 가진 별도의 영역으로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들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의 계발과 함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발되어야 할 능력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김경아, 2004).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은 리더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리더십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축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황미영, 2009).

청소년기에는 영재학생이나 일반학생 모두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정서지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숨어있는 리더십 잠재력을 찾아내고 계발시키는 일이 나아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확립하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성취감과 자아효능감을 기를 수 있다.

한편, 학생의 여러 가지 배경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인 성별에 리더십과 정서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차이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들(Miller, 1991; Dormody & Seecevers, 1994; 김미숙, 조석희, 진석연, 2005; 조혜연, 2006), 남학생의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최창욱, 2001; 윤경미와 김정섭, 2008), 남녀 간에 리더십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Miller & Bowen, 1993; 이은경, 2004)이 각각 보고되고 있다. 영재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들도(민재식, 2011; 김지선 외, 2012; 김선옥, 2012)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결과를 약간씩 상이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의 성별에 따라 리더십과 정서지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학생의 리더십계발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환경에 비해서 지나치게 인지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된 중학교 과

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배경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정서지능의 어떤 요인이 리더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영재학생의 발달 가능성과 잠재력이 장래에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는가? 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넷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 총점, 개인내 특성 및 개인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리더십의 정의와 구성요인

Hollingsworth(1942)는 영재아들에게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정의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 정의적 측면의 능력은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리더십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리더십은 매우 다양한 학자에 의해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Manske(1987)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적을 향해 매진하도록 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성품이라고 정의하였고, Gallagher(1985)는 리더십은 결국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김미숙 외(2005)는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리더십을 영재성의 한 영역으로 보고 평가하고자 시도한 예는 Renzulli 외(1976)에 의한 영재행동특성 척도(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Revised) 중 포함된 리더십 행동특성 검사를 들 수 있다. 해당 검사지는 재능의 한 영역으로서의 리더십 영역에서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을 판별해내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박성익 외, 2003,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은 2005년 연구 자료에서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100개의 국내외 문헌을 찾아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리더십 구성요소를 약 20가지로 범주화하였다(김미숙, 전미란, 2005). 이후 이루어진 후속 연구(김미숙 외, 2006)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리더십을 ‘개인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 내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개인 간 특성으로 구성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과 추진, 새로움에 대한 도전정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정직과 신의, 과제책임감 등의 내재적 요소와 원만하고 영향력 있는 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의 외현적 요소로서 이들 요소가 개인 삶의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정의하였다(김미숙 외, 2006). 각 하위요인들의 개념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리더십 특성요인과 개념적 정의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	개념적 정의
개인내 특성 (내재적 요소)	비전과 추진력	비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세우고 계획하여 행동함
		자신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성취 가능성에 대해 믿음
		추진력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밀고 나가는 능력
	도전 정신	자기 관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시간과 금전 등의 자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기 계발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함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궁금해 함
	의사 결정력	모험심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나 일을 시도하고자 함
		상황 판단	문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 판단하여 해결함
		공정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평하게 일을 처리함
	의로움	정직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옳은 일을 실천함
		신의	타인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
과제 책임감	성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	
	책임감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지고자 함	
개인간 특성 (외현적 요소)	대인 관계	대인 관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인기와 유머감각이 있음
		의사 표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조직 능력	조직 관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함
		카리스마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함
	타인과 공동체 배려	타인 배려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며,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함
		사회 현신	자신의 능력, 물질, 시간 등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함
	팀워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함	

나. 정서지능의 정의와 구성요소

Goleman(1995)은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껏해야 20%이고 나머지 80%는 다른 요소에 기인하며, 잘 개발된 정서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과 효과성이 높다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서와 지능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0)의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들은 학업 성취나 직장에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정서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변별하며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유도하는 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정서지능을 일종의 사회지능이라고 보았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으로 나뉘볼 수 있다. 지능(intelligence)은 정신기능의 인지적 측면으로 학습, 기억, 추론, 판단 또는 적응을 포함하는 인지적인 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emotion)는 정신기능의 정의적 측면으로 정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정서를 지능의 개념으로 설명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런 논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Gardner가 제시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Gardner(1993)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대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등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대인지능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대내지능이 정서지능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Goleman(1995)은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개념을 다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는데 그 요소는 자신의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조절, 자신을 동기화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대인관계 다루기이다. 그러나 Mayer와 Salovey(1997)는 Goleman(1995)의 정서지능의 요소 속에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정서에 대한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서지능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는 표현능력, 사고를 촉진하는 정서에 접근하거나 정서를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지능이 일반지능과 사회지능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문용린(1999)은 Mayer와 Salovey(1997)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4개 영역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입각하여 감정이입 영역을 추가하였다.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영역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인식 및 표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 묻는 영역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2) 감정이입능력: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역이다. 즉,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3)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영역으로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는 데에,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정서를 촉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영역이다.

4)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토대로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으로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지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이다. 자신과 남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고, 추리, 창의적 과제 등에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와 남의 기분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능력이다.

5) 정서조절능력: 인식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좌절을 느끼거나 불쾌한 감정 상태에 있는 타인의 기분을 전환시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또한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1~2학년으로 A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50명, S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소속 10명, S시교육청 지역공동영재학급 3개 학교 소속 90명 총 150명이다. 일반학생은 동일한 경기도 지역 중학교 1학년 65명, 2학년 65명 총 1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구성

변인		과학영재	일반학생	합계(명)	백분율(%)
성별	남	78	65	143	52.4
	여	68	62	130	47.6
학년	중1	98	63	161	59.0
	중2	48	64	112	41.0
합계		146	127	273	100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은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별과정을 통하여 선발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영역별 우수성 입증자료,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에 의거하여 선정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통해 지적 능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측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이 되고 3단계에서는 구술형, 수행형 등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육청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자로서 담당교사의 관찰, 추천 방식에 의해 합격한 학생이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모두 한 가지로 답하거나 일부에만 답하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영재학생 146부, 일반학생 127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검사 도구

가. 리더십 특성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수준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김미숙 외, 2006)의 KEDI 리더십 특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전 한국교육개발원(2003)이 개발한 ‘지도력 진단도구’를 보완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요소로서의 리더십 개념을 구조화하여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검사도구로 보급하고자 제작되었다. KEDI 리더십 특성 검사는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으로 분류하며 최종적으로 총 19요인 75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검사도구이다. 이 중에서 본 검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문항구성은 3차 요인을 분석하여 비슷한 문구로 이루어진 문항의 경우 중복성을 피하고 중학교 학생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문항을 제외시킨 후 3차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를 2차 요인에 포함시켜 총 9개의 하위영역으로 재편성하였다. 그 결과 1차 요인 개인내 특성에 대하여 6개의 하위요인(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능력,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의로움, 과제책임감)이 각각 6문항씩 구성되었으며, 개인간 특성에 대하여 3개의 하위요인(대인관계능력, 조직관리능력, 타인과 공동체 배려)이 각각 6문항씩 구성되어 총 9개의 하위요인별 54문항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검사에 사용된 리더십 하위요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649~.841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57로 나타났다.

나.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 도구는 Mayer와 Salovey(1997)가 초기 정서지능 3모형을 수정하여 제작한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 제작한 표준 검사지인 청소년용 EQ 진단검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지 하위요인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 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으로 5개의 하위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체크하는 형식이며 부정적으로 기술된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을 하는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하위요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605~.753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2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별 점수를 합산하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집단, 성별,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가.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비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리더십 특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리더십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비교

영역	과학영재(N=146)		일반학생(N=127)		t	p
	M	SD	M	SD		
비전과 자신감	3.80	0.69	3.33	0.70	5.572	.000***
자기관리능력	3.55	0.70	3.04	0.66	6.166	.000***
도전정신	3.80	0.66	3.43	0.65	4.649	.000***
의사결정력	3.71	0.64	3.31	0.58	5.413	.000***
의로움	3.95	0.64	3.69	0.55	3.651	.000***
과제책임감	3.89	0.63	3.43	0.58	6.259	.000***
개인내 특성	3.78	0.55	3.37	0.49	6.493	.000***
대인관계능력	3.74	0.61	3.31	0.62	5.793	.000***
조직관리능력	3.73	0.88	3.20	0.66	5.551	.000***
타인과 공동체배려	3.90	0.61	3.58	0.54	4.566	.000***
개인간 특성	3.79	0.60	3.36	0.53	6.182	.000***
리더십특성 총점	3.79	0.54	3.37	0.47	6.778	.000***

*** $p < .001$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의 리더십특성 전체 평균(3.79)은 일반 학생(3.37)에 비해 0.42점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t=6.778, p<.001$).

리더십 특성 하위영역에는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리더십 특성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은 9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리더십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인식이나 사회에 대한 헌신, 배려, 책임감 등에서 높지 않다는 일부 편향된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영재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더십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영재학생의 리더십 수준을 진단한 김미숙 외(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영재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리더십 총합’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모든 리더십 요인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미현, 전미란, 홍훈기(2007)의 연구에서 과학영재의 리더십 점수가 일반학생들의 리더십 점수보다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경아(2004)의 초등학교 영재아와 일반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리더십이 더 높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등 영재아의 경우는 목적 의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인간 관계능력이 가장 낮았는데 반해 중학교 영재학생은 비전과 자신감,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 다른 항목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온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변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발달시켜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선애(2011)의 중학생 영재와 일반학생, 반장학생 및 반장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창의적 인성 관계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의로움과 도전 정신,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과제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조직관리 능력의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은 김미숙 외(2006), 이선애(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과제책임감과 대인관계능력, 조직관리 능력이 우수하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나.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 비교

리더십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전체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생의 경우는 의로움($t=-2.046, p<.05$), 타인과 공동체 배려($t=-2.064, p<.05$)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 배려($t=-2.357, p<.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영재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의로움, 과제책임감, 타인과 공동체 배려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 과제 책임감의 순으로 나타나서 큰 상이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영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비전과 자신감(3.83점), 도전정신(3.81점)에서만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반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비전과 자신감(3.34점), 자기관리능력(3.07점), 도전정신(3.46점), 의사결정력(3.35점), 대인관계능력(3.31점), 조직관리능력(3.23점)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표 5>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 비교

하위영역	과학영재		<i>t</i>	<i>p</i>	일반학생		<i>t</i>	<i>p</i>
	남 (N=98)	여 (N=48)			남 (N=65)	여 (N=62)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비전과 자신감	3.83 (0.71)	3.74 (0.63)	0.732	0.465	3.34 (0.67)	3.32 (0.73)	0.211	0.833
자기관리능력	3.54 (0.71)	3.58 (0.66)	-0.387	0.699	3.07 (0.64)	3.01 (0.68)	0.522	0.603
도전정신	3.81 (0.69)	3.77 (0.62)	0.389	0.698	3.46 (0.63)	3.39 (0.67)	0.645	0.520
의사결정력	3.70 (0.65)	3.73 (0.62)	-0.268	0.789	3.35 (0.55)	3.27 (0.61)	0.751	0.454
의로움	3.88 (0.67)	4.11 (0.55)	-2.046	0.043*	3.60 (0.60)	3.78 (0.53)	-1.895	0.060

과제책임감	3.87 (0.66)	3.94 (0.56)	-0.698	0.486	3.40 (0.59)	3.47 (0.58)	-0.625	0.533
대인관계능력	3.73 (0.63)	3.75 (0.56)	-0.207	0.836	3.31 (0.53)	3.30 (0.66)	0.082	0.935
조직관리능력	3.71 (0.97)	3.77 (0.67)	-0.352	0.725	3.23 (0.53)	3.17 (0.78)	0.517	0.606
타인과 공동체배려	3.83 (0.64)	4.05 (0.53)	-2.064	0.041*	3.47 (0.55)	3.70 (0.51)	-2.357	0.020*
리더십 총점	3.77 (0.56)	3.83 (0.48)	-0.642	0.522	3.36 (0.45)	3.38 (0.49)	-0.309	0.758

* $p < .05$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영재와 평재의 수학과학 창의성과 리더십 차이를 분석한 김미숙 외(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더십의 하위요인들 중 의사표현능력, 갈등조정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영(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리더십에 있어서 여아의 리더십이 남아의 리더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로움 요인과 타인과 공동체 배려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성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황미영(2009)의 논의와 같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시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빨라서 좀 더 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은 여학생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가.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에는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하위영역	과학영재(N=146)		일반학생(N=127)		<i>t</i>	<i>p</i>
	<i>M</i>	<i>SD</i>	<i>M</i>	<i>SD</i>		
정서인식 표현	3.40	0.57	3.31	0.51	1.349	.178
감정이입	3.38	0.56	3.29	0.51	1.339	.182
정서의 사고촉진	3.72	0.52	3.38	0.56	5.314	.000***
정서지식의 활용	3.68	0.52	3.51	0.49	2.843	.005**
정서의 조절	3.04	0.47	3.01	0.48	0.640	.522
정서지능 총점	3.45	0.34	3.30	0.34	3.575	.000***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평균은 일반학생보다 0.15점 가량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575, p<.001$).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의 평균이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t=5.314, p<.001$)과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t=2.843, p<.001$)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이($M=3.72, SD=0.52$)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M=3.51, SD=0.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의 조절 능력은 영재학생($M=3.04, SD=0.47$)과 일반학생($M=3.01, SD=0.48$) 모두에게서 가장 낮은 하위영역이었다.

이는 김지선 외(2012)의 연구에서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중 가장 평균값이 높은 항목이 정서조절($M=3.34$)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김정아(2004)의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초등 영재학생과 중학교 영재학생의 정서적 성장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반면 민재식(2011)의 중학교 3학년 과학영재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방식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에서, 일반학생은 정서의 활용 능력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정서인식 및 표현과 감정이입 능력은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영재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정서지능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학년에 따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중학교 시기가 정서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학년에 따라서 정서지능의 차이가 큼을 시사한다.

나.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비교

정서지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비교

하위영역	과학영재		<i>t</i>	<i>p</i>	일반학생		<i>t</i>	<i>p</i>
	남	여			남	여		
	(<i>N</i> =98) <i>M</i> (<i>SD</i>)	(<i>N</i> =48) <i>M</i> (<i>SD</i>)			(<i>N</i> =65) <i>M</i> (<i>SD</i>)	(<i>N</i> =62) <i>M</i> (<i>SD</i>)		
정서인식 및 표현	3.38 (0.58)	3.46 (0.56)	-0.774	0.440	3.28 (0.50)	3.35 (0.53)	-0.791	0.431
감정이입	3.30 (0.58)	3.53 (0.49)	-2.289	0.024*	3.23 (0.49)	3.35 (0.52)	-1.356	0.178
정서의 사고촉진	3.72 (0.54)	3.72 (0.48)	0.006	0.995	3.36 (0.52)	3.40 (0.60)	-0.438	0.662
정서지식의 활용	3.65 (0.53)	3.76 (0.48)	-1.193	0.235	3.39 (0.46)	3.63 (0.49)	-2.793	0.006**

정서의 조절	3.04 (0.46)	3.04 (0.49)	0.068	0.946	3.08 (0.39)	2.93 (0.56)	1.659	0.100
정서지능 총점	3.42 (0.36)	3.50 (0.29)	-1.363	0.175	3.27 (0.33)	3.33 (0.35)	-1.098	0.274

* $p < .05$, ** $p < .01$

영재학생은 감정이입 능력($t = -2.28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t = -2.793,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학생의 경우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일반학생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재식(2011)의 연구에서 일반학생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사실로부터 일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정서를 생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면이 조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학생이나 일반학생의 경우 ‘정서 조절 능력’이 가장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정서조절능력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달리 단일한 수준에서 정서지능 구성요소와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정된 정서지능 모형에서는 가장 상위의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능력이 선행됨으로써 갖추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는 중학생 시기에 호르몬 영향, 가치관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 등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의적 특성도 큰 역할을 하지만 영재학생의 특별한 정의적 특성에 해당하는 과흥분성이나 민감성의 영향으로 일반학생보다 효과적인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가.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 내에서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영재학생 집단에서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영재학생의 리더십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분석

리더십 정서지능	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 능력	도전정신	의사 결정력	의로움	과제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조직관리 능력	타인배려	리더십 총점
정서 인식	0.526***	0.595***	0.485***	0.626***	0.440***	0.547***	0.553***	0.403***	0.518***	0.648***
감정 이입	0.394***	0.448***	0.370***	0.370***	0.471***	0.487***	0.375***	0.328***	0.587***	0.528***
정서 사고	0.460***	0.576***	0.361***	0.542***	0.419***	0.585***	0.513***	0.374***	0.464***	0.593***

정서 지식	0.411***	0.475***	0.379***	0.475***	0.307***	0.453***	0.439***	0.301***	0.451***	0.509***
정서 조절	0.084	0.056	0.124	-0.073	0.106	0.086	-0.003	-0.011	0.167*	0.072***
정서지능 총점	0.601***	0.690***	0.549***	0.628***	0.559***	0.691***	0.604***	0.451***	0.699***	0.754***

* $p < .05$, *** $p < .001$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분석 결과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54, p<.001$).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보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비전과 자신감($r=0.526, p<.001$), 자기관리능력($r=0.595, p<.001$), 도전정신($r=0.485, p<.001$), 의사결정력($r=0.626, p<.001$), 대인관계능력($r=0.553, p<.001$)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과 의사결정력간의 상관계수는 전체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0.626, p<.001$).

이는 김경아(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이 리더십 특성의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리더십 특성과 많은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의 감정이입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의로움($r=0.471, p<.001$)과 타인과 공동체 배려($r=0.587, p<.001$)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정직, 신의를 중요시 여기는 의로움이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지능의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과제 책임감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585, p<.001$). 이는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은 리더십 특성에서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만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167,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나, 다른 리더십 특성의 하위영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관계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아(2004)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초등 영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 조절 능력이 오히려 모든 다른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보다 리더십 특성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중학교 영재학생은 정서를 생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요즘의 청소년들이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자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거나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과도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서지능 전체와 리더십 특성 전체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타인과 공동체 배려($r=0.699, p<.001$), 과제 책임감($r=0.691, p<.001$), 자기관리 능력($r=0.690, p<.001$), 의사결정력($r=0.628, p<.001$), 대인관계능력($r=0.604, p<.0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은혜(2002)가 대인 관계 기술이 뛰어난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쉽게 알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알며 타인의 감정이나 동기, 관심에 대해 쉽게 통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나. 과학영재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R ² 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64	0.255		0.642	0.522			
정서인식	0.362	0.059	0.387	6.176	0.000***			
정서지식	0.246	0.068	0.237	3.635	0.000***	55.132***	0.610	0.420
감정이입	0.261	0.056	0.274	4.675	0.000***			
정서사고	0.163	0.075	0.158	2.177	0.031*			

* $p < .05$, *** $p < .001$

분석 결과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은 정서지능 요인 중 정서조절 요인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리더십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 4개의 요인의 설명력은 리더십 특성 전체에 대해 $R^2=0.610(F=55.132,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설명력이 42.0%로 다른 요인의 설명력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조절은 리더십에 대해 아무런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리더십 특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387)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74),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237),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리더십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

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키워질수록 리더십 특성에서 대인관계 능력,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와 같은 타인과 더불어 사고하고 행동하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리더십 특성의 1차 요인인 개인내 특성과 개인 간 특성별로 종속변인의 변수를 달리하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표 10>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 요인이 개인간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R ² 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48	0.267		0.554	0.580			
정서인식	0.374	0.061	0.391	6.089	0.000***			
정서사고	0.174	0.078	0.166	2.226	0.028*	50.784***	0.590	0.415
감정이입	0.245	0.059	0.251	4.179	0.000***			
정서지식	0.241	0.071	0.227	3.396	0.001**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의 결과와 같이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들은 개인간 리더십 특성의 전체 분산 중 59.0%를 설명하고 있다. F값은 50.784이며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므로 이 모형은 개인 간 리더십 특성의 분산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이 각각 1점 높아짐에 따라 개인 간 리더십 특성은 평균 .374점, .174점, .245점, .241점씩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간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391)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51),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227),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1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 요인이 개인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R ² 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275	0.331		0.830	0.408			
정서인식	0.372	0.073	0.353	5.080	0.000***			
감정이입	0.317	0.072	0.296	4.430	0.000***	40.700***	0.462	0.310
정서지식	0.321	0.076	0.275	4.209	0.000***			

*** p < .001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들은 개인내 리더십 특성의 전체 분산 중 46.2%를 설명하고 있다. F값은 40.700이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이므로 이 모형은 개인내 리더십 특성의 분산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이 각각 1점 높아짐에 따라 개인내 리더십 특성은 평균 .372점, .317점, .321점씩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353)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96),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2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에 영향을 더 받는 리더십 특성의 변수는 개인 간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고,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및 영향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총 리더십 특성과 리더십 하위요인별 특성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각 집단 간의 리더십 특성 1차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집단 내에서 개인내 특성과 개인 간 특성의 1차 요인에 따른 평균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별로 리더십 특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통적으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의로움과 타인과 공동체 배려 하위요인이 1, 2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리더십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 영역에서, 일반학생은 타인과 공동체 배려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정서지능 총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정서지능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과 정서 지식의 활용 능력에서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평균이 일반학생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에서,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들은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학생의 경우는 과제 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과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 조절 능력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학생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을 비교한 결과 정서지능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감정이입 영역에서,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영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보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능력,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대인관계능력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의사결정력 간의 상관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전체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나타난 종속변수인 리더십 특성이 전체 분산 중 61.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설명력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에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가장 큰 예측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영재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지능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각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상담 활동을 병행하여 영재학생의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인 검사도구로 얻어진 것이므로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이 영재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서적 신장과 리더십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사전,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나 면담활동, 담당 교사들의 관찰, 일화 등을 통해 해당 변인들에 대한 보다 더 종합적인 측정 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영웅 (2004).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리더십 기술 인식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경아 (2004). 영재아와 일반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금희 (2007). 한·중 영재 및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미숙, 조석희, 진석언 (2005). 학년과 성별에 따른 영재와 평재의 수학/과학 창의성과 리더십 차이 및 두 능력의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9(3), 799-820.
- 김미숙, 전미란 (2005).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I): 영재 리더십의 사회적 지대와 구성요인 분석. 수탁연구 CR2005-36,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박효정, 유효현, 전미란, 박춘성, 손은영 (2006).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II):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수탁연구 CR 2006-44,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옥 (2012). 영재학급학생과 일반학급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정서지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정일 (2003). 평생교육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6(1), 1-19.
- 김지선, 유미현, 윤여홍 (2012). 초등 과학영재의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에 관한 학생 자신과 부모의 인식관점 비교. **과학영재교육**, 4(2), 140-156.
- 노영희 (2003).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문용린 (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사대논총**, 59, 31-98.
- 민재식 (2011). 중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파주: 교육과학사.
- 박은이, 홍훈기 (2010). 과학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 접근. **영재교육연구**, 20(3), 703-720.
- 여상인, 백은주 (2007).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국제과학영재학술지**, 1(1), 43-49.
- 유미현, 전미란, 홍훈기 (2007).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리더십, 과학자에 대한 인식비교 및 '과학자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재수업에의 적용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253-280.
- 윤경미, 김정섭 (2008). 대학생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319-345.
- 이선애 (2011). 중학생 영재와 일반학생, 반장학생 및 반장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은경 (2004).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과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임선영 (2007). 중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리더십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은혜 (2002).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 발달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조혜연 (200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과 리더십 생활 기술과의 관계 연구*. 석사 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최창욱 (2001).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황미영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학업성취도 및 정서지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Besty, O. C. (1996). *A Study of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Skills of Gifted and Talented Secondar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h. 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lack, R. R. (1984). *Leadership: A new model particularly applicable to gifted youth*(Report No. EC171399). Indiana: Handicapped and Gifted Children Clearinghouse.
- Burns, J.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 Chan, D. (2007). Leadership and Intelligence. *Roeper Review*, 29(3), 183-189.
- Chauvin, J. C., & Karnes, F. A. (1983). A leadership profile of secondary gifted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53, 1259-1262.
- Cooper, R. K., & Sawaff, A. (1997). *EQ: Emotional intelligence in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New York: Grosset/Putnam.
- Dearborn, K. (2002), Studie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define our approach to leadership development. *Public Personal Management*, 31(4), 523-530.
-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65-71.
- Feldman, D. A. (1999). *Tire handbook of 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ship: Inspiring others to achieve results*. New York: Leadership Performance Solutions.
- Gallagher, J. (1985). *Teaching the gifted child*. Boston: Allyn & Bacon.
- Gabriel, Y., & Griffiths, D. S. (2002), Emotion, learning, and organization. *Learning Organization*, 9(5), 214-221.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9). *Intelligence refrained*.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Origin and development*. New York: World Book.
- Manske, F. (1987). *Secrets of effective leadership*. Germantown TN: Leade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 Inc.

- Mayer, J.,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21.
- Mayer, J., & Geher, G.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89-113.
- Mayer, J., & Salovey, P. (1997). *Emotional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Milgram, R. M., & Milgram, N. A. (197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gifted Israeli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185-192.
- Miller, J. P. (1991). *Four-H and non-4-H participants' development of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h. 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iller, J. P., & Bowen, B. E. (1993).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1(1), 68-76.
- Plowman, P. D. (1981). Training extraordinary leaders. *Roeper Review*, 3(3), 13-16.
- Sisk, D. A., & Rosselli, H. C. (1987). *Leadership: A special kind of giftedness*. New York: Trillium.
-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Delta Kappan*, 60, 180-184.
- Renzulli, J. S., Smith, L. H., & White, A. J. (1997).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yback, D. (1997). *Putting emotional intelligence to work: Successful leadership is more than IQ*. Oxford, England: Butterworth-Heinemann.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isinger, H. (1998). *Emotional intelligence 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in Middle School Age and Emotional Intelligence's Effects on Leadership Characteristics

Young-Han Lee

Chungmyoung Middle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intelligence's effects on leadership characteristics. For this study, 150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130 general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score of leadership characteristic and sub-domains of leadership characteristi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 of the gifted studen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 it showed that the score of girl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ys in some sub-domain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Second, the total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domains of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inking-acceleration ability by emotion' and 'ability of utilizing emotional knowledge'.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 it showed that the score of girl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ys in some sub-domain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Third, it prove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adership characteristic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Forth, the gifted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ed leadership characteristic significantly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ey Words: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General students, Leadership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1차 원고접수: 2012년 10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12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12월 27일